

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

훈련 추진계획

지진에 의한 지하철 화재 및
다중인파 사고 복합재난 대응

훈련일시	2026. 10. 29.(목) 14:00~16:00
훈련장소	월드컵경기장역 ·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
주관기관	유성구 · 대전교통공사 합동



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사진

한눈에 보는 2026 안전한국훈련

훈련일시

10.29

목 14:00~16:00

참여기관

17개

기관·단체

참여규모

약 300여 명

훈련 참여

재난유형

복합재난

지진·화재·인파

토론훈련 | 재난안전대책본부

- 장소: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
- 주재: 구청장 · 13개 협업기능 중심
- 상황판단 → 재대본 운영 → 수습·복구 의사결정 점검

현장훈련 | 월드컵경기장역

- 주제: 부구청장 ·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참여
- 구조·구급, 교통통제, 응급의료, 자원지원 실제 가동
- PS-LTE 및 양방향 중계로 토론·현장을 동일 흐름으로 연계

핵심 방향 | “초동 협업 + 실전 자원 가동 + 주민 참여”

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연결

재난안전대책본부

본부장 구청장 | 차장 부구청장 | 총괄조정관 안전도시국장

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

본부장 부구청장 | 4개 분야 · 14개 지원반

⇄ PS-LTE · 양방향 중계 ⇄

13개 협업기능

상황관리 · 통신 · 복구 · 자원 · 교통 · 의료
· 질서 · 구조구급 · 홍보 등

의사결정

초동 대응기관

유성소방서 · 유성경찰서 · 대전교통공사 등과
상황전파·구조·통제 공조

현장대응

민간·지원기관

자율방재단 · 의용소방대 · 자원봉사센터
· 적십자 등 참여

주민참여

핵심은 “보고 체계”가 아니라 현장 정보가 의사결정으로 즉시 연결되는 구조

왜 ‘화재 + 다중인파’ 복합재난인가

2025년 대전 5개구 화재 통계

242건 / 27.3%

유성구 화재 발생건수 · 5개구 중 최다

53.9억원 재산피해

기본계획 표 수치 기준 · 5개구 중 가장 큰 규모

- ✓ 국가 핵심 연구시설 밀집
- ✓ 대형 다중이용시설·산업시설 혼재
- ✓ 초기 대응 실패 시 피해 확산 가능



반복되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면서,
밀집공간의 인명피해까지 동시에 대비

유성구 자율방재단의 역할

재난의 예방/ 대비/ 대응 복구활동

01

재난자원 관리

- 자율방재단 인적, 물적자원 관리
-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
- 긴급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

02

재난 예방

- 피해 우려지역 사전 예찰, 신고 정비
- 재난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

03

재난대응

- 비상관리체계 유지, 경보전달
- 주민대피유도
- 차량통제

04

재난복구

- 재난지역응급복구 (전기,통신,상하수도)

훈련에서 자율방재단의 역할



2025년 안전한국훈련

① 주민 대피 유도

② 재난현장 교통통제



2025년 안전한국훈련 현장사진

“훈련의 목표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,
실제 재난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하는 것입니다.”

철저한 사전준비 · 명확한 역할분담